

경제원론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포도주의 국내 공급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음 서술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소주와 포도주의 수요곡선은 모두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① 협정 체결 후 포도주 국내 공급 증가와 함께 소비자들의 포도주 선호도가 높아지면 포도주 가격은 상승하고 소비량 역시 증가한다.
- ② 취향에 따라 포도주 소비자와 소주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고 선호 체계가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소주 가격과 소비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 ③ 포도주와 소주가 대체재라면 소주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량 역시 감소한다.
- ④ 포도주와 소주가 보완재라면 소주 가격은 상승하고 소비량 역시 증가한다.
- ⑤ 포도주와 소주가 보완재라면 소주시장의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고 대체재라면 소주시장의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2.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원두커피의 소비는 늘어나는 반면 인스턴트커피의 소비는 줄어든다고 하자. 두 시장의 공급곡선이 모두 우상향할 때,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스턴트커피 가격 상승의 소득효과는 인스턴트커피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② 소득이 증가할 때 인스턴트커피 가격은 하락하고, 인스턴트커피 소비량은 증가한다.
- ③ 인스턴트커피 가격 변화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언제나 반대방향으로 나타난다.
- ④ 인스턴트커피 가격이 상승할 때 인스턴트커피 소비량은 증가할 수도 있다.
- ⑤ 소득이 증가할 때 원두커피 가격은 상승한다.

3. 어느 기업이 특정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에 대한 수요를 독점하고 있다. 이 기술자들의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생산물시장은 완전경쟁적이다. 이 기술자들에 대한 이윤 극대화 고용량은 L_0 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기술자들이 공급하는 노동의 한계요소비용곡선은 노동공급곡선보다 기울기가 가파르다.
- ② L_0 에서 이 기술자들이 공급하는 노동의 한계요소비용과 한계생산가치는 일치한다.
- ③ 이 기술자들의 임금은 이들이 공급하는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보다 낮다.
- ④ 이 기술자들의 임금은 이들이 공급하는 노동의 한계요소비용보다 낮다.
- ⑤ 정부가 이 기술자들의 최저임금을 L_0 에서의 한계생산가치보다 높게 설정하면 사회적으로 최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4. 비용곡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작은 구간에서 생산량을 감소시키면 평균비용이 감소한다.
 나. 고정비용이 없는 경우에 한계비용이 일정하면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은 일치한다.
 다. 노동이 유일한 가변요소인 단기에서 한계비용과 노동의 한계생산은 역의 관계가 있다.
 라. 고정비용이 증가하면 한계비용도 증가한다.
 마. 장기평균비용곡선이 우하향하는 구간에서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한다.

- ① 가, 라
- ② 다, 마
- ③ 가, 나, 다
- ④ 나, 다, 마
- ⑤ 나, 라, 마

5. 어느 기업의 생산량(Q)과 가변생산요소(x)는 단기에 $Q=2\sqrt{x}$ 의 관계를 갖는다. 가변생산요소는 x 만 존재한다. 이 기업의 단기비용은 가변비용과 고정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정비용은 500이다. 생산요소인 x 의 단위당 비용이 100일 때 이 기업의 단기 비용함수는?

- ① $500 + 200/Q$
- ② $500 + 25Q^2$
- ③ $500 + 200\sqrt{Q}$
- ④ $500 + 50Q$
- ⑤ $500 + 50\sqrt{Q}$

6. 영희는 지난해 예산선 상에서 의류를 50단위 소비하였고 식료품을 100단위 소비하였다. 올해 의류 가격은 변화가 없으나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자. 올해 영희의 예산선 상에 작년의 소비목음이 있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영희의 선호체계에는 변함이 없고 재화는 의류와 식료품 뿐이다.

- ① 식료품 소비를 늘린다면 영희가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영희의 소득은 작년보다 증가하였다.
- ③ 의류가 열등재이고 영희가 효용을 극대화한다면 의류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 ④ 현시선호의 공리에 따르면, 영희의 올해 식료품 소비량이 늘어서는 안 된다.
- ⑤ 영희의 후생은 작년과 같거나 더 높을 것이다.

경제원론

7.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가 5%의 확률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3,000만원의 손실을 입는 위험에 처하여 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소비자가 위험기피적이라면 재해손실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150만원을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 ② 재해 발생시 1만원을 보상하는 보험의 공정보험료는 500원이다.
- ③ 공정보험이 제공될 때 위험기피적 소비자는 완전보험에 가입한다.
- ④ 공정보험이 제공되더라도 위험애호적인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 ⑤ 보험회사가 양의 이윤을 얻도록 보험료율이 책정된다면 위험중립적인 소비자는 완전보험을 들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험에 든다.

8. 경유에 대한 시장수요는 $Q^D = 120 - P$ 이며, 시장공급은 $Q^S = 2P - 30$ 이다. 따라서 경유에 대한 세금이 없을 때 시장 균형가격은 50이고 거래량은 70이다. 정부가 경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경유의 소비자가격(세금 포함)을 70으로 올리려면, 정부는 경유에 단위당 얼마의 세금(중량세)을 부과하여야 하는가? (단, Q^D 는 경유 수요량, Q^S 는 경유 공급량, P 는 단위당 경유가격)

- ① 10 ② 20 ③ 30 ④ 40 ⑤ 60

9. 시장구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완전경쟁기업의 공급곡선은 독점기업의 공급곡선보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나.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에서 시장가격은 시장에 참여한 모든 기업의 한계비용과 같다.
 다. 독점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이 독점가격에서 수요는 가격 탄력적이다.
 라.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가 가격 탄력적일수록 독점가격은 완전경쟁가격에 가깝다.

-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라 ④ 가, 나, 다 ⑤ 나, 다, 라

10. 구두시장은 완전경쟁적이며, 구두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의 장기평균비용은 $AC_i = (q_i - 10)^2/2 + 20$ 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구두에 대한 시장수요는 $Q^D = 1,000 - 10P$ 이다. 구두시장의 장기균형에서 가격과 기업의 수는? (단, AC_i 는 기업 i 의 장기평균비용, q_i 는 기업 i 의 생산량, Q^D 는 시장수요량, P 는 가격)

- ① 가격은 20, 기업 수는 80개
- ② 가격은 20, 기업 수는 40개
- ③ 가격은 10, 기업 수는 80개
- ④ 가격은 10, 기업 수는 60개
- ⑤ 가격은 10, 기업 수는 40개

11. 어느 복점시장에서 시장수요의 역함수는 $P = 130 - 2Q$ 이며, 두 기업 모두에게 고정비용은 없고, 한계비용은 10으로 일정하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P 는 시장가격, Q 는 두 기업 생산량의 합)

- ① 베르뜨랑(Bertrand) 균형에서 $P = 10$, $Q = 60$ 이다.
- ② 베르뜨랑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된다.
- ③ 베르뜨랑 모형에서는 두 기업이 자신의 가격을 독립적으로 동시에 결정하며, 꾸르노(Cournot) 모형에서는 두 기업이 자신의 생산량을 독립적으로 동시에 결정한다.
- ④ 꾸르노 모형에서 두 기업의 반응곡선은 모두 우하향한다.
- ⑤ 꾸르노 균형에서의 시장 거래량은 베르뜨랑 균형에서의 시장 거래량보다 많다.

12. 두 경기자 갑, 을의 전략과 보수는 다음 표와 같다. 두 경기자가 독립적으로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의 왼쪽 값은 경기자 갑의 보수, 오른쪽 값은 경기자 을의 보수)

		경기자 을		
		전략 L	전략 C	전략 R
경기자 갑	전략 U	(1,1)	(2,0)	(1,1)
	전략 M	(1,2)	(3,2)	(2,3)
	전략 D	(0,0)	(4,3)	(2,4)

- ① 경기자 갑에게 전략 M은 전략 U보다 우월하므로 내쉬(Nash)균형에서 경기자 갑은 전략 U를 선택하지 않는다.
- ② 순수전략(pure strategy) 내쉬균형은 3개가 있다.
- ③ 두 경기자의 보수의 합이 가장 큰 전략조합은 내쉬균형 중 하나이다.
- ④ 경기자 을에게 전략 C보다 우월한 전략은 없다.
- ⑤ 경기자 을이 전략 L을 선택하는 내쉬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원론

13. 민준과 서연에게 화단은 순수공공재이다. 화단으로부터 각자 10만원에 상응하는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화단을 만드는 비용은 12만원이다. 두 사람은 화단을 만드는데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독립적으로 동시에 결정한다. 한 사람이라도 찬성하면 화단이 만들어지고 그 비용은 찬성한 사람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즉, 한사람만 찬성하면 혼자 12만원을 지불하고 두 사람 모두 동의한다면 각각 6만원씩 지불한다. 모두 반대하면 화단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사적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두 사람 모두 화단을 만드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나. 반대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우월 전략이다.
 다. 내쉬균형에서는 언제나 화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 모두 찬성하는 것이 파레토(Pareto) 효율적이거나 무임승차의 문제로 인하여 실현되기 어렵다.

- ① 나, 라 ② 다, 라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14. 완전경쟁시장의 일반균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생산자의 이윤이 극대화되고 양의 값을 가진다.
- ② 예산집합에서 각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된다.
- ③ 일반균형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지만 공평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 ④ 한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려면 반드시 다른 소비자의 후생이 낮아져야 한다.
- ⑤ 선호체계와 생산기술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이 성립할 때, 초기부존 자원을 적절히 재분배하여 임의의 파레토 효율적 배분을 일반균형이 되게 할 수 있다.

15. 대학교육의 사적한계편익(PMB)은 대학생 수(N)에 따라 $PMB(N) = 600 - 15N$ 으로 결정되고 대학생 수(N)가 한 단위 늘 때 마다 추가적으로 150의 외부한계편익이 발생한다. 대학교육의 한계 비용(MC)은 $MC(N) = 15N$ 으로 결정된다. 정부개입 없이 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대학생 수, 그리고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는 최적 대학생 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피구보조금(Pigouvian subsidy)을 순서대로 적은 것은?

- ① 20, 25, 150 ② 20, 30, 150 ③ 20, 25, 100
 ④ 20, 30, 100 ⑤ 30, 20, 100

16. 어느 경제에 A와 B 두 구성원이 있고 각각의 후생을 u_A 와 u_B 로 나타낼 때 효용가능경계(utility possibility frontier)가 $2u_A + u_B = 100$ 으로 주어져 있다. 단, $u_A \geq 0$, $u_B \geq 0$ 이다. 정부개입이 없을 때 시장의 균형배분에서 A의 후생은 0이고 B의 후생은 100이다. 어떤 소득재분배 정책이 도입된다면 시장 균형에서 A의 후생은 20으로 늘어나고 B의 후생은 50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아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경제에서 정부개입이 없는 시장경제의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 ② 이 소득재분배 정책은 파레토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 ③ 사회후생이 효용의 합($u_A + u_B$)으로 정의될 때, 정부개입이 없어도 이 경제의 사회후생은 극대화된다.
- ④ 사회후생이 효용의 최소값($\text{Min}\{u_A, u_B\}$)으로 정의될 때, 이 소득재분배 정책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
- ⑤ 사회후생이 효용의 곱($u_A \times u_B$)으로 정의될 때, 이 소득재분배 정책의 도입은 사회후생을 개선시킨다.

17. 두 가지 생산요소 x_1 과 x_2 를 사용하는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가 $Q = \sqrt{x_1 + x_2}$ 이다. 생산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은 모두 완전경쟁적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 기업은 현재 $x_1 = 40$, $x_2 = 60$ 을 사용하여 10단위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 ① 등량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곡선의 형태를 띤다.
- ② x_1 을 10단위 덜 사용하는 대신 x_2 를 10단위 더 사용하면 이 기업의 이윤은 감소한다.
- ③ 생산요소시장에서 x_1 의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이 기업은 x_2 만을 사용한다.
- ④ 생산요소 사이의 대체탄력성이 1이다.
- ⑤ 생산물 가격이 오른 경우, x_1 과 x_2 의 투입비율(x_1/x_2)이 변화하면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는다.

18. 어느 독점기업이 3차 가격차별(third-degree price discrimination)을 할 수 있다고 하자. 첫 번째 집단의 수요의 역함수는 $P_1 = 500 - Q_1$ 이고, 두 번째 집단의 수요의 역함수는 $P_2 = 500 - 2Q_2$ 이다. 두 집단에 판매되는 제품은 동일하며, 어느 집단에 판매하는지는 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P_1 과 P_2 는 각각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에 대한 가격, Q_1 과 Q_2 는 각각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수요량)

- ① 이 독점기업은 두 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한계수입이 일치하도록 각 집단에 대한 가격을 책정한다.
- ② $Q_1 = Q_2$ 인 점(단, $0 < Q_1 < 250$, $0 < Q_2 < 250$)에서 첫 번째 집단의 수요가 더 가격 탄력적이다.
- ③ $P_1 = P_2$ 인 점(단, $0 < P_1 < 500$, $0 < P_2 < 500$)에서 두 집단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동일하다.
- ④ 이 독점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P_1 < P_2$ 가 되도록 가격을 책정한다.
- ⑤ 이 독점기업의 이윤은 가격차별화가 불가능해지더라도 변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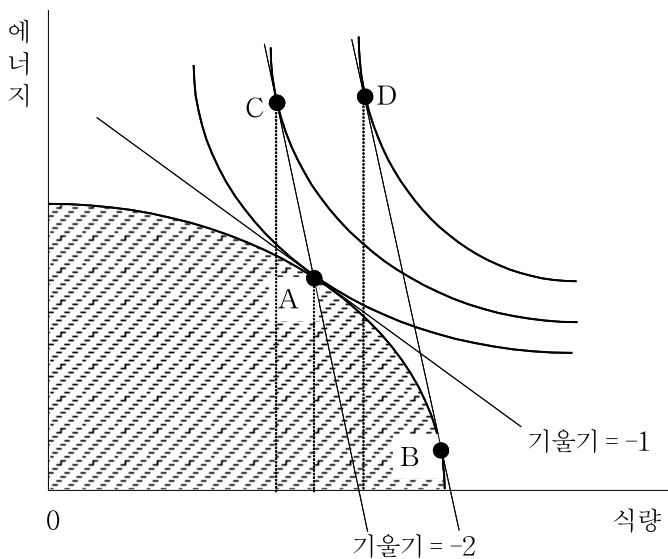
경제원론

19. 세 국가 A, B, C로 이루어진 세계경제에서 노동력이 유일한 생산요소인 리카도(Ricardo) 모형을 가정하자. 밀과 자동차 두 가지 재화만 존재하며, 각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노동량은 다음 표와 같다. 단, 세 국가가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밀과 자동차의 교역조건은 1 : 1이 된다고 가정하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밀	자동차
A국	3	6
B국	2	5
C국	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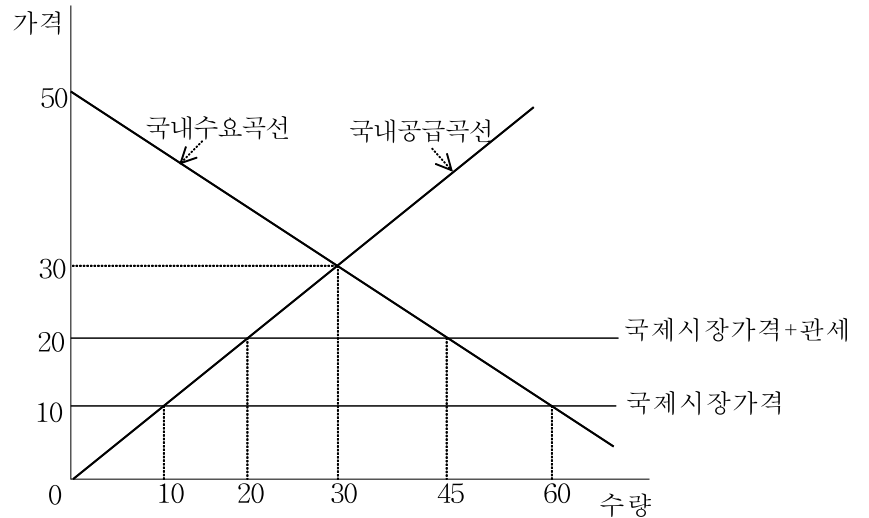
- ① A국에서 밀 생산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1/2 단위이다.
- ② 세 국가가 자유무역을 할 때 A국은 밀과 자동차를 모두 생산한다.
- ③ B국은 A국에 비해 밀 생산 및 자동차 생산에서 절대우위를 갖는다.
- ④ B국은 A국 및 C국에 비해 밀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
- ⑤ 세 국가가 자유무역을 할 때 C국은 자동차 생산에 특화한다.

20. 다음 그림의 빗금 친 영역은 식량과 에너지 두 재화만 존재하는 경제의 국내 생산가능집합을 나타낸다. A와 C를 지나는 직선과 B에서 생산가능경계와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2이고, A에서 생산가능경계와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1이다. 생산가능집합의 우상방에 그려진 세 개의 곡선은 대표적 국내소비자의 무차별곡선이다. 폐쇄경제에서는 두 재화의 균형가격이 동일하고, 국제시장에서는 식량 가격이 에너지가격의 2배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무역개방은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① 폐쇄경제에서 균형생산은 A에서 이루어진다.
- ② 폐쇄경제의 균형생산량을 유지하면서 국제무역을 이루진다면 이 나라는 식량을 수출하고 에너지를 수입하게 될 것이다.
- ③ 개방경제균형에서 이 나라는 식량 생산을 늘리고 에너지 생산을 줄일 것이다.
- ④ 개방경제균형에서 이 나라 소비자는 식량과 에너지를 모두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다.
- ⑤ A를 지나는 무차별곡선에서의 후생과 C를 지나는 무차별곡선에서의 후생의 차이로 무역이득을 설명할 수 있다.

21. 국내 쌀시장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주어졌다고 하자. 국제시장의 쌀 가격이 10이고 국내시장의 개방이 국제시장 균형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쌀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국내 소비자잉여와 국내 생산자잉여가 모두 증가한다.
- ② 쌀시장 개방 후 국내 소비자들의 쌀 소비량은 60이고 이 중에서 국내균형생산량 30을 뺀 나머지가 수입된다.
- ③ 쌀시장 개방 후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생산자잉여는 관세부과 전보다 200 증가한다.
- ④ 쌀시장 개방 후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부과 전보다 125의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 ⑤ 10의 관세 대신 15의 수입할당을 하더라도 국내 소비자잉여는 동일하다.

22.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악화되었다고 하자. 폐쇄경제의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이러한 투자심리 악화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여건에는 변화가 없고,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며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① 물가수준이 하락한다.
- ② 생산비용이 상승하여 단기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 ③ 실업률이 상승한다.
- ④ 총수요관리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
- ⑤ 국민소득이 감소한다.

경제원론

23.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보다 낮다.
나. 구직률(job finding rate)은 낮아지고 실직률(job separation rate)은 높아진다.
다. 양(+)의 경기적 실업이 발생한다.
라. 인플레이션갭(inflationary gap)이 발생한다.

-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라
- ④ 나, 다 ⑤ 다, 라

24. 국민소득과 관련된 변수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모두 고르면?

가. 국민소득의 네 가지 지출 구성요소 중에서 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나. 소비, 투자, 정부지출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것은 정부지출이고 가장 작은 것은 소비이다.
다. 내구소비재에 대한 지출의 변동성보다 비내구소비재에 대한 지출의 변동성이 더 크다.
라.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은 교육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라
-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라

25. 어느 나라의 거시경제모형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이 경제의 잠재적 총생산(potential output)이 1,500인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C = 100 + 0.8(Y - T)$
 $I = 150$
 $G = 50$
 $T = 50$
 $Y = C + I + G$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 ① 균형국민소득이 잠재적 총생산보다 작으며, 잠재적 총생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투자를 50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 ② 균형국민소득이 잠재적 총생산보다 작으며, 잠재적 총생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부지출을 40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 ③ 균형국민소득이 잠재적 총생산보다 크며, 잠재적 총생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세를 50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 ④ 균형국민소득이 잠재적 총생산보다 크며, 잠재적 총생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투자를 40만큼 감소시켜야 한다.
- ⑤ 균형국민소득이 잠재적 총생산보다 작으며, 잠재적 총생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세를 40만큼 감소시켜야 한다.

26. 투자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케인즈는 투자의 한계효율(marginal efficiency)과 이자율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투자수준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 ② 가속도원리에 의하면 투자는 소득변화의 증가함수이다.
- ③ 신고전학파의 투자이론에 의하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투자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 ④ 토빈(Tobin)의 q이론에 의하면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어느 기업의 시장가치가 그 기업의 실물자본 대체비용보다 큰 경우, 이 기업의 투자는 감소한다.
- ⑤ 디딤(Dixit)의 투자옵션모형에 의하면 투자는 불확실성의 감소함수이다.

27. 통화량, 이자율, 인플레이션율과 관련된 다음 서술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화증가율의 상승이 실질이자율을 낮춰 소비, 투자,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피셔(Fisher) 효과라고 한다.
- ② 통화량 증가가 명목변수만을 비례적으로 상승시키고 실질변수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화폐의 중립성(neutrality)이라고 한다.
- ③ 통화량이 증가하면 명목이자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유동성 효과(liquidity effect)라고 한다.
- ④ 통화증가율의 상승이 실물부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화폐가 초중립적(super-neutral)이라고 한다.
- ⑤ 개방경제에서 통화량이 증가하였을 때 물가의 경직성과 이자율 평형(interest parity) 하에서 국내 통화가치가 장기적 균형수준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하는 것을 초과반응(overshooting)이라고 한다.

28. 거시변수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 ② 이미 발행된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수출재의 국제가격이 수입재에 비하여 상승하였을 경우, GNI 증가율이 GNP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 ④ 전년 대비 공무원 수는 변화가 없고 급여가 5% 감소하였다면 명목 GDP는 감소하지만 실질 GDP에는 변화가 없다.
- ⑤ GDP 디플레이터는 기준년도의 고정된 재화와 서비스 품목구성(basket)에 대한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경제원론

29. 총생산함수를 $Y = AN^\alpha K^{1-\alpha}$, $0 < \alpha < 1$ (Y, N, K, A 는 각각 총소득, 노동투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로 가정할 때, 성장회계와 경제성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α 와 같다.
- ② A 가 일정한 솔로우 경제성장모형에서 저축률의 상승은 장기적으로 1인당 소비를 항상 증가시킨다.
- ③ A 는 실제 관측되지 않는 것으로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라고 한다.
- ④ A 가 일정하고 1인당 자본량이 근제상태(steady state)보다 적을 때,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할수록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은 하락한다.
- ⑤ 경제성장률이 6%, 노동투입 증가율이 3%, 자본투입 증가율이 8%, $\alpha = 0.6$ 이라면 총요소생산성은 1%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30. 화폐수요, 화폐유통속도, 통화정책과 관련된 다음 주장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통화론자들은 화폐수요와 소득 사이의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한다.
 나. 케인즈학파는 화폐유통속도가 이자율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지면 사람들은 이자율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매우 높아진다.
 라. 동태적 비일관성(dynamic inconsistency)의 문제가 존재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의 유효성이 커진다.
 마. 물가변동에 대한 연동(indexation)계약이 일반화될수록 통화정책의 경기안정화 효과가 커진다.

- ① 가, 나 ② 나, 라 ③ 다, 마
-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마

31. 미래 전망적(forward-looking) 소비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질이자율의 상승은 차입자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 ②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일시적인 조세삭감은 같은 크기의 영구적인 조세삭감보다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 ③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유년기, 중년기, 노년기 중에서 중년기의 저축률이 가장 높다.
- ④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의하면 정부지출이 일정할 때 현재의 조세삭감은 현재소비를 증가시킨다.
- ⑤ 유동성제약 하에서는 현재소비가 현재소득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32. 폐쇄경제에서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거시경제 균형의 단기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가. 명목임금이 경직적일수록 경기확장 효과가 작아진다.
 나.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일수록 물가수준의 상승폭이 커진다.
 다. 이자율이 하락하여 민간 투자가 증가한다.

- ① 가 ② 나 ③ 가, 다
- ④ 나, 다 ⑤ 가, 나, 다

33. 내생적 성장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기적으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함수가 모든 투입요소에 대하여 한계생산 체감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 ② R&D모형에 의하면 비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을 갖는 지식의 축적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 ③ 인적자본모형에 의하면 효율적인 교육정책은 경제성장률을 영구적으로 높일 수 있다.
- ④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동시축적으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1인당 소득의 지속적 증가를 설명할 수 있다.
- ⑤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의 1인당 소득수준이 장기적으로 수렴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34. 통화정책에 관한 다음 서술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폐수요함수가 불안정할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불확실해진다.
- ② 루카스의 화폐적 경기변동이론에 의하면 통화당국은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물가예상 착오로 인한 경기변동을 줄일 수 있다.
- ③ 통화정책의 신용경로는 통화량의 변화가 이자율보다는 대출량에 영향을 미쳐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 ④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
- ⑤ 실물부문에 비해 화폐시장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이자율보다는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경기안정화에 더 효과적이다.

경제원론

35. IS-LM모형에서 거시경제정책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우상향한다.

- ①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확장적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을 크게 증가시킨다.
- ②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긴축적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을 크게 감소시킨다.
- ③ 화폐수요가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크게 증가시킨다.
- ④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긴축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크게 감소시킨다.
- ⑤ 소득세율이 낮을수록 확장적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을 크게 증가시킨다.

36.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며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가. 소비심리의 호전은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나. 수입 원유가격의 상승은 단기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다. 예상물가수준의 상승은 단기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라. 명목임금이 경직적인 경우,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실질임금이 하락하여 단기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① 가, 나
- ② 나, 라
- ③ 다, 라
- ④ 가, 나, 다
- ⑤ 가, 나, 다,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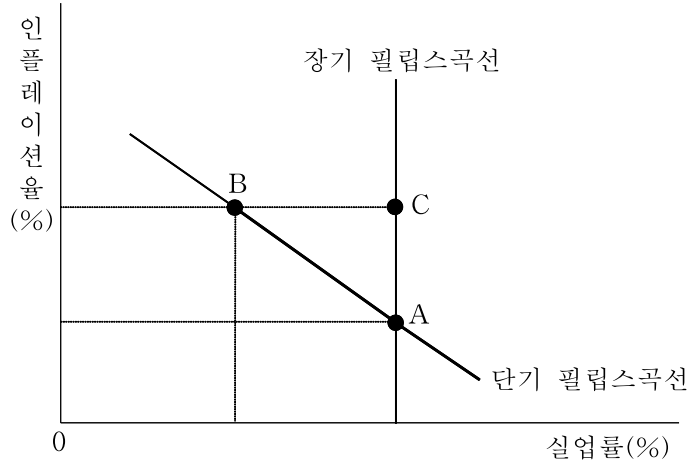
37.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 다음 중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은?

- ① 조세삭감
- ② 재할인율의 인하
- ③ 법정지불준비율의 인하
- ④ 정부지출의 감소
- ⑤ 국채의 공개시장매입

38. 대부자금(loanable fund)의 공급이 실질이자율의 증가함수이고 대부자금의 수요는 실질이자율의 감소함수인 대부자금시장모형에서 재정흑자 증가의 결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질이자율이 하락한다.
- ② 민간저축이 감소한다.
- ③ 민간투자가 증가한다.
- ④ 재정흑자의 증가분만큼 국민저축이 증가한다.
- ⑤ 정부저축이 증가한다.

39. 다음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경제가 B에 있는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실제인플레이션율과 같다.
- ② 경제가 A에 있는 경우, 적응적 기대 하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A에서 B로 이동시킨다.
- ③ 경제가 A에 있는 경우, 합리적 기대 하에서 예상치 못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A에서 C로 이동시킨다.
- ④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단기 필립스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 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단기 필립스곡선 상의 움직임으로 나타낼 수 있다.

40. 현재 우리나라의 국채 이자율은 3%, 회사채 이자율은 7%이고 미국의 국채 이자율은 2%, 회사채 이자율은 5%라고 하자. 채권의 만기는 모두 1년이다. 현재 대미달러 원화환율이 1,500원/\$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거래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 ① 이자율 평형(interest parity) 조건에 따를 때, 두 나라의 국가부도 위험에 차이가 없다면 1년 후 대미달러 원화환율은 약 1%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② 1년 후 대미달러 원화환율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면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③ 두 나라의 국가부도 위험에 차이가 없다면 1년 후 인도되는 달러의 선물환율은 약 1,515원/\$일 것이다.
- ④ 회사채 이자율로 판단한 위험 프리미엄은 미국시장보다 국내시장에서 더 크다.
- ⑤ 한국의 국채와 회사채 이자율이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자본수지는 항상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